

독일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박 명 선,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2006년 8월

독일에서 빠르게 증가한 한부모 가족은 더 이상 비전형적인 가족 유형으로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출산율 감소로 인한 복지 국가의 축소 위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가족을 모델로 구조화된 가부장적 복지 국가에서, 특히 한부모 가족 취업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미취업의 위험과 아버지의 역할 결여로 인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뒷받침하려는 가족 정책, 이들 가족의 빈곤 위험, 양육의 어려움 및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하르츠 제4법(Hartz IV)은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 정책을 결합하여 실업 상황에 있는 젊은 한부모 가족 여성의 취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이중 구조의 파트타임 교육을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의 여성들은 이제 독신모의 상황을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가 일반화되려면 여전히 사회적 통합의 대상인 한부모 가족의 당면한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인 해결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한 부모 가족의 증가와 가족 정책

독일의 복지 국가적 발전이 정체되었다거나 이미 쇠퇴하였다고 보는 학자들은 그 원인의 하나를 고령화보다는 출생률 저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생률 저하는 소위 '정상 가족'으로서의 핵가족이 감소한 결과인데, 독일에서는 가족 유형이 급격하게 다양해지고 있다.

2005년 현재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전체 가구는 1,260만으로, 이 중 73%에 해당하는 930만 가구가 전통적인 핵가족이고, 한부모 가족이 21%, 자녀를 키우는 동거 가족이 6%를 구성한다. 가족 정책의 표적 집단은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으로, 이는 890만 가구에 이른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혼인부부 가족의 68%, 동거부부 가족의 90%, 한부모 가족의 60%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한부모 가족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280만 명이며, 이는 전체 미성년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핵가족 중심의 가족 정책은 이제 대안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동거 파트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2003년 현재 153만 7천 명이며, 이 중 87%인 134만 명이 여성이다. 이들의 7.3%는 사별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며, 별거인 경우가 18.4%, 이혼의 경우가 41.9%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2.4%는 비혼 여성으로서 이들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현재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더욱 빈번하다. 또한 사회주의를 경험한 후 과도기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구동독 지역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출생률 증가를 목표로 하는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출생뿐 아니라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한편 대표적인 빈곤위험 집단으로 꼽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이 사회 부조에 장기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취업을 늘리면서 자녀 양육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 여성 가구주의 취업 상황과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특징적인 가족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위험 상황과 일반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을 먼저 살펴본다.

2. 한부모 가족의 위험과 사회 정책적 지원

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대표적인 빈곤위험 집단이지만, 자발적 비혼모를 포함하여 한부모 가족이 더 이상 동질적인 집단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 한부모 가족의 25%가 사회부조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 많다. 한편 구서독 지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50%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6-17세 사이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도 30%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경우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각각 16%, 10% 정도이다. 이렇게 한부모 가족은 계층, 연령대, 삶의 경로가 다양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핵가족 유형에서 기대하는 가족 기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한부모 가족은 여전히 결여된 또는 제한된 가족 기능으로 유지된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가부장적 복지 국가의 중심 행위자인 남성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의 위험, 사회보장 및 보호에서 제외되는 취약한 사회적 지위, 아버지 역할의 결여에 따른 자녀 양육의 실패, 파트너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 때문에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고, 교육 및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 등,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빈곤 지원

빈곤 위험에 있는 한부모 가족은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속하기 위해 아동 수당, 양육비 및 양육비 세금 공제, 생계비 대부, 사회부조와 추가 소요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아동 수당 대신 자녀 양육을 위한 세금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1,824유로의 최저 생계비와 1,080유로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본인의 가족으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 한부모는 자녀의 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인해 받는 세금 공제를 자신이 받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은 소득이 중간 계급에 속하는 한부모에게 더욱 유리하다.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못할 경우, 자녀를 직

접 키우는 한부모는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12세까지 최장 72개월을 받으며, 첫 자녀가 받은 아동 지원금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불가피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가 없는 한부모 가족 여성은 다른 생계 수단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부조 수급자가 된다. 2001년의 여성 한부모 가족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27%가 사회부조를 받고 있다. 7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16세 미만의 자녀가 둘 또는 세 명이 있는 경우는 사회부조 규정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추가 소요비용을,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는 60%를 받는다. 추가 소요비용을 받으면서 한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경우는 이 비용에 취업자 세금 공제로 결정되는 기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취업 소득액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법에는 독신 부모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고, 양육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가족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 자녀보육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독일아동및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보육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청의 주요 업무이다.

우선, 한부모 가족의 중요한 양육 조건으로서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보육 시설 연계와 가정보육사 파견을 지원한다. 구서독 지역은 3세 미만의 자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 공동체에서는 보육 시설의 유지와 개선에 대한 요구 때문에 보육료가 인상되고 있고,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소득이 낮으면 청소년청에 보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취업모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하여 보육비 청구가 쉽지 않다. 또한 종일제 보육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모는 직장의 근무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동독 지역은 보육 시설 사정이 나은 편으로 거의 수요에 따른 보육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가족 교육 및 이혼, 별거 등의 상황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심리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생활의 물질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임신·출산 등의 가족 구성,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간병 휴가, 가족 회복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청은 한부모 가족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데, 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가족 회복을 위해 지원 요청이 없어도 개입한다. 청소년의 불안정한 보호와 교육에도 개입하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한부모 가족의 결여된 가족 기능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독특한 장애 상황, 즉 빗을 지거나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 빈곤, 불량한 주거 환경, 자녀 양육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경우,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경우, 가정 폭력이나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청은 이들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함께 사회사업적 지원을 한다.

청소년청은 호적사무소와 연계하여 혼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자동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하나 후견 지원은 1998년 7월 1일부터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친부 확인과 생계 지원을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도 카리타스나 종교적인 사회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한부모 자조 집단 등과 같은 자원 조직에 대해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 이혼 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한부모 가족 취업모의 취업 상황과 요구

1) 취업 실태와 문제점

2000년 현재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에 달한다. 이들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이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진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7.2%로, 혼인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참여율인 62.5%보다 높다.

취업 소득은 안정적인 가족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지만 여성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취업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가구 평균 순소득 1,904유로와 비교하여 여성 한부모 가족의 평균 순소득은 1,534유로로 평균 이하이며, 남성 한부모 가족의 평균 순소득 1,960유로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핵가족의 평균 순소득 2,835유로, 자녀를 키우는 동거 가족의 평균 순소득 2,516유로와는 더욱 크게 차이가 난다. 연령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하여 계산한 결과, 여성 한부모 가족의 가족 구성원 1인당 소득은 모든 가족 유형의 가족 구성원 1인당 소득의 76%밖에 되지 않는다.

한부모 가족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강해서 1997년 전일제 취업자의 비율은 29%로 핵가족 취업모의 전일제 취업자 비율보다 두 배가 높다. 한편 이들의 실업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낮은 구직 자격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가진 경우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높은 구직 자격을 갖추고, 자녀의 연령이 높은 한부모 가족 여성은 직장을 구하는데 거의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따른 이중 부담은 여성의 높은 파트타임 취업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5분의 3이 파트타임 취업을 하고 있다. 이 때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취업모의 2분의 1이 파트타임 취업을 하지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는 취업모의 3분의 2 이상이 파트타임직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수에 따른 양육 부담이 여성의 불안정한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15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취업모가 미취업인 경우, 가족 구성원의 1인당 소득은 1인당 평균 소득의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트타임 취업을 할 경우, 1인당 소득은 64%, 전일제 취업을 할 경우는 80%까지 상승한다. 한편 소득 빈곤은 미취업의 경우는 56%, 파트타임 취업의 경우는 26%, 전일제 취업의 경우는 11%로 감소한다. 그러나 전일제 취업을 함으로써 빈곤선에서 벗어난 약 90%의 여성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 베르트 에겐(Bernd Eggen)이 지적하듯이 이들은 근로 빈민의 상태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 미취업 여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취업의 원인이 노동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

지 않았거나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서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전형적이거나 조건이 나쁜 직장에도 취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은 핵가족 취업모보다 훨씬 빈번하게 조건이 나쁜 직장에 취업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의 9%는 한시적인 노동 계약을 하는데, 이는 핵가족 취업모의 4%가 하는 것보다 크게 차이가 난다. 한편,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은 한시적 노동 계약으로 인해, 또한 더 나은 고용 조건을 위해 이직하는 경우가 핵가족 취업모보다 두 배 더 많았다.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은 주말이나 저녁, 밤 근무 또는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일제 직장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 한부모 가족 여성의 취업을 위한 요구

직업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한부모 가족 여성들은 우선 기업에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로 한부모 가족 취업모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직장인으로서의 수용, 가족 휴가(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간병 휴가) 이후의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해고 보호, 자녀 보육 보장 등을 원했다. 둘째로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원하고 있었다. 노동 환경으로는 높은 주당 노동 시간과 초과 노동시간을 지적하면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수가 주어지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 전망과 관련해서는 숙련향상 프로그램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보육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생활시간과 일치하는 노동 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 노동 시간과 작업장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면 이는 한부모 가족 취업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가족 문제로 인한 한부모 가족 취업모의 결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덜 긴장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동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신설, 개선할 것과 한부모 가족 취업모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녀 보육비 제공도 요구하였다. 한편 한부모 가족 취업모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4.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한부모 가족의 여성은 핵가족의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만 실업률도 높다. 1993년부터 사회법(SGB) III은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실업수당을 다른 실업자들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실업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

한부모 가족의 취업모는 자녀 보육으로 인해 파트타임 취업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미흡해서 불안정한 취업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파트타임 및 한시적 노동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15인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같은 업무를 하는 일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이미 6개월 이상 종사한 파트타임 취업자의 노동시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연방양육비법에 따라 2000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3세까지의 부모기간(Elternzeit)에 부모가 주당 3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8세까지 고용주의 동의하에 12개월까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피고용인 15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파트타임 취업자가 부모기간에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한 기업의 68%는 제외되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지원한 2002년의 '빈곤 예방을 위한 뉘른베르크 설문 조사'에서 여성 한부모 가족의 빈곤 상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는데, 특히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한부모 가족의 취업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취업모의 5분의 4는 직업 지향적이며, 자녀 양육과 동시에 가능한 빠른 취업과 직업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불안정한 복지 한계 집단의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구직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공하였고,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 프로젝트인 Hartz IV를 뒷받침하였다.

2005년부터 실시된 하르츠 제4법(Hartz IV)는 이전의 단순한 노동시장 정책적 프로그램에 사회 정책적 특성을 결합하여 취업의 안정성, 지속성 및 경로 적합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선 실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구직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담당 행정부서를 통합, 개편하였다. 특히 젊은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동적인 실습훈련 과정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사례 담당자(Fallmanager)가 적극적으로 개발, 연계하도록 하

였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 집단의 빈곤 탈출을 위해, 이들에게 사회부조와 실업부조를 통합한 실업수당 II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제안한 ‘파트타임 취업교육’이다.

사회부조 또는 실업부조 수급자로서 노동 능력이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2005년부터는 실업수당 II의 수급자(2005년 4월 현재 457,000명)가 되었는데, 이들 중 205,000명이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 한부모 가족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 여성 한부모 가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 합리화로 자녀 양육 후 재취업하려는 여성 한부모 가족도 취업을 위한 재훈련 또는 향상훈련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부모 가족의 취업모는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전면적인 직업훈련제도 개선이 요구되었고, 헤센주에서 실시된 ‘젊은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JAMBA)’이 성공을 거두면서 2005년 4월부터 연방직업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실습 이중체계의 파트타임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교육자인 한부모 가족 취업모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전일제 직업교육제도에 따라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교육 및 실습시간을 조정하면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취업과 자녀 보육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구성, 이를 구체적이고 유동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하는 조직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심리사회적, 재정적, 물리적 시간 배분의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가족 취업모의 복합적인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법 등의 소프트웨어의 변화와 함께 조직적인 환경 변화, 즉 시간 구조, 자녀 보육 및 사회사업적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법 (SGB) II에 의해 구성된 ‘지역공동체-노동사무소 협의회(ARGE n)’가 한부모 가족의 다양한 가족 및 취업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사정을 통해 자녀 보육, 취업 및 직업교육 등에 관한 적합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한계 집단의 지역사회 통합을 꾀하도록 하였다. 지역 사회의 지원과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한부모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등, 잦은 접촉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하르츠 제4법은 수요자 중심의 친가족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보다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미국에서 신자유적인 복지국가 조정으로서 실시된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처럼 근로 빈민을 양산하는 상황이나 유럽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이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 한부모 집단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보면, 그 대상이 한정적이다. 노동 능력이 있고, 가정과의 연계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5. 사회 정책적 지원에 대한 평가

한부모 가족 여성들의 사회 정책적 지원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은 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문제 집단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공식적인 지원 없이 자신의 생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공적 기관을 통해 받은 지원은 재정 지원(자녀 탁아비, 생계비, 일시적 부조), 별거, 이혼 및 파트너 관계에 관한 상담 서비스, 자녀 양육 관련 상담, 어린이집 입소, 일반적 정보 및 조언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는 다양한 보육 시설과 프로그램, 가정과 직장의 양립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인 환경 조건의 개선을 들었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 연구에서도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

하다고 확인하면서, 부모 요구에 따른 탁아 시간을 중심으로 자녀 보육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의 제안은 경제적인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의 균등화 및 한부모 가족이라는 가족 유형에 대한 인정과 평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한부모 가족 유형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고,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통적 핵가족과는 차별적인 사회 정책적 전망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소되는 복지국가의 국가 과제로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 한부모 가족에 대해 이제는 비정상적 가족 유형이라는 낙인과 이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근심보다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 획득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낙관적인 삶의 전망은 현재 여성 한부모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사회적으로 극복하면서 가능해질 것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6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